

# 제 30 차 인권이사회

## UN 인권최고대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구두 보고

UN 서울인권사무소 관련 인권최고대표 구두 보고  
(인권이사회 결의 28/22)

2015 년 9 월 21 일 제네바

방금 마무리 된 패널 토론회를 통해 깊이있는 통찰을 담은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토론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DPRK)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하여 저명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가 참여하여 DPRK 내 대규모 인권 유린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러한 인권 유린이 DPRK 내 주민과 외국인 납치/실종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DPRK 에 대한 인권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기념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일년간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관련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역할과 성과에 대해 인권이사회에 구두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에는 결의 28/18 요청에 따른 UN 서울 인권사무소(이하 "서울인권사무소") 설치도 포함됩니다.

서울인권사무소는 인권이사회 결의 25/25 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아 현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인권사무소는 DPRK 내 인권 상황 개선과 책임규명을 핵심 임무로, 사무소 직원은 시민사회, 정부, UN (산하) 기구 및 기타 관련 당사자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인식외취, 기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납치 및 강제실종도 서울인권사무소가 집중 할 사안입니다.

지난 6 월 서울인권사무소 개소식을 위해 서울에 방문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학술 기관을 포함한 조력자 분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개방적인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년 간 DPRK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해 온 분들이었습니다. 서울인권사무소는 이런 분들 모두와 정보를 나누고 협력과 조율을 해나가는 발판(platform)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인권이사회 결의 25/25 및 이후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다수를 통해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방한 기간 동안 여러 탈북자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중 올해 탈북해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DPRK 내에서 일상적으로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들었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분을 바탕으로 한 심각한 차별을 받으며, 표현의 자유도 철저히 제한되고, 결혼에도 제한이 있으며, 부패는 만연하고, 온 가족이 실질적인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혹은 혐의만 있더라도 언제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남북/북남 할 것 없이 한반도 내 주민 모두가 언젠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양측 정부 인사 다수도 이러한 통일에 대한 간절함을 공유합니다. 인권 원칙은 양측 정부가 상호 대화를 확대하여 인권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더불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최근 8 월 남북/북남 간 대화와 합의문은 일부 사안, 특히 이산가족 상봉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연장자가 남북/북남 간 국경을 사이에 두고 가족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일부 만이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만날 수 있었고,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에 진척을 이룰 수 있는지가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양측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및 기타 가족 간 연락을 가능하도록 하여 신뢰 구축 조치를 이어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기적으로 한반도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양측 대화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과거의 일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양측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위 언급한 내용을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인권이사회는 DPRK 정부가 DPRK 를 대상으로 두번째로 이루어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 참여한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DPRK 는 인도주의지원,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보건 및 교육에 관한 다수의 권고안을 처음으로 수용했습니다. 이는 DPRK 가 국제사회 인권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유의미한 개혁을 시작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저는 유의미한 첫 걸음으로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DPRK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을 지속하며, DPRK 가 수용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권고안과 같이 유의미하고 측정가능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분야에 기술 협력과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저는 현재 DPRK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저의 메시지를 DPRK 고위급 인사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되길 고대합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UN 조직 내 관련 구성원과 이야기를 나누어 국가 내 UN 프로그램을 통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사위원회는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향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도 포함됩니다. 지난 12 월사무차장보가 저를 대신하여 안보리에서 DPRK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안보리가 DPRK 내 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DPRK 참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혹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검토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안보리의 이러한 노력 자체가 추가적인 인권 침해를 억제할만큼 강력하다고 봅니다.

서울인권사무소는 동시에 DPRK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다양한 정보 출처로부터 정보를 수집해나갈 것입니다. 정보는 한반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으로부터 수집할 것이며, 탈북자로부터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은무엇을 시작점으로 DPRK 참여를 유도해갈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심도있는 보고와 분석을 통해 언젠가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인권사무소는 탈북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보고관과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정보에 더해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에 대한 한층 더 심도있는 최신 정보를 수집합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역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의 삶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DPRK 내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삶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고 정의 실현과 구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DPRK 내 참혹한 상황은 역내 긴장 상태와도 긴밀한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DPRK 에서 탈출하는 사람들, 오늘 패널 토론회에서 논의한 국제납치 및 강제실종, 그리고 DPRK 정부가 군사 및 핵 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모두가 역내 뿐만 아니라 DPRK 내 주민들이 권리를 향유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위원회, 여러 특별보고관, 헌신적인 시민사회 인권운동가 및 학계는 DPRK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음을 반박할 수 없도록 밝혀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한반도 및 역내에 진정한 평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DPRK 정부, 전 회원국 및 관계당사자와 협력하여 DPRK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신속한 개선과 책임 규명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473&LangID=E#sthash.ZX1xZinB.dpuf>